

미국 防産장비의 현안과제

월간〈국방과 기술〉
편집실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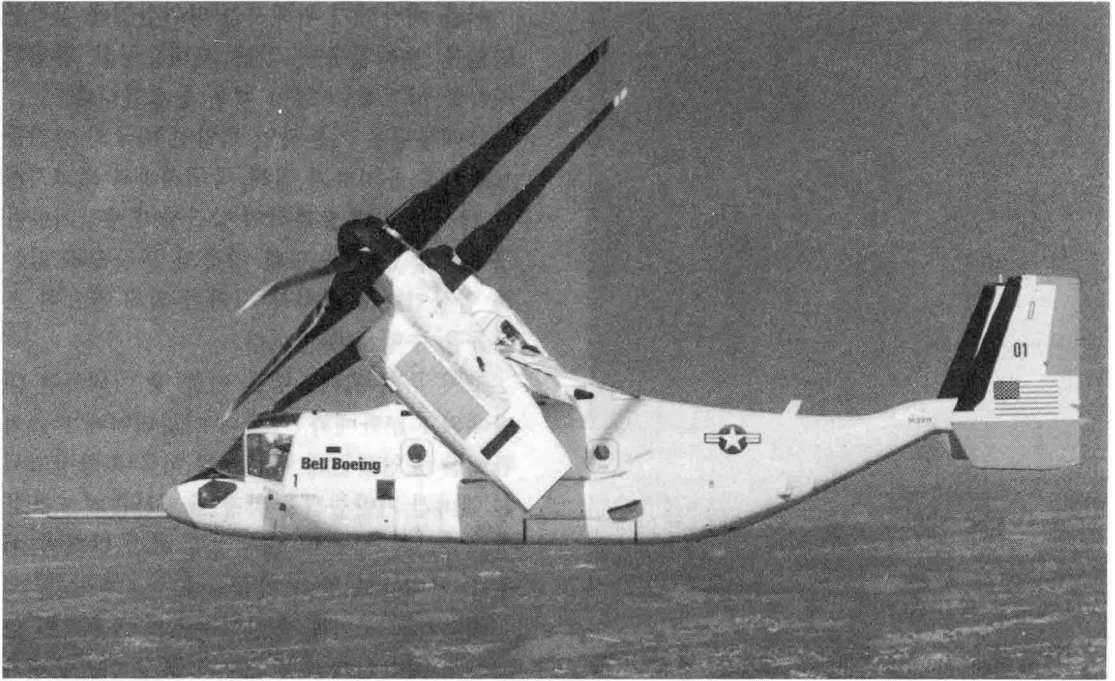
클린턴 美대통령은 1993년 1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동시에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세계속에서 미국이 강대국으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국내의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안보와 함께, 방산정책과 국방예산을 재조정해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클린턴 美대통령은 혼란스런 세계 질서속에서 변화하는 군사정세에 관해, 여러 방면의 정책보좌관들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매일같이 쇄도하는 엄청난 양의 사건과 정보에서, 현재 당면하는 핵심과제를 끌어내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산조달 계획을 등한시하는 오류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美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방산기술과 장비조달의 핵심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미국의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평가를 통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연구개발과 장비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V-22 OSPREY 수직이착륙機. 이착륙은 대형 헬기와 같은 성능이지만 속도, 항속거리, 탑재량은 훨씬 큼니다

냉전 체제가 해체되었을 때에 부시 행정부는 노드롭사의 B-2 스텔스 전폭기 구입을 75대에서 20대로 낮추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방부는 의회의 요구로 국방예산지출을 줄였고, 또한 지금도 국방예산을 최소화도로 절감하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급한 국방예산 삭감의 예를 보면, 벨사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V-22 OSPREY 개발 계획을 중단한 국방부의 결정은, 미군이 차세대 병력수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직이착륙 시스템과, 민간항공기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그리고 수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의 기회를 함께 빼앗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美대통령이 고려해야할 3가지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냉전체제의 해체와 국방예산의 한계로 국내 혹은 해외주둔 병력의 감축과, 군규모의 축소가 필연적인 요소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첫번째 과제와 모순되는 이야기지만, 현재 진행되거나, 앞으로 예기되는 지역적 분쟁의 위협은 미국이 고도로 훈련되고 기동성 있는 군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투력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군의 감축과 신뢰성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할수 있는 방법은 「고도의 첨단기술 개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3가지 과제는 치밀하게 추진되는, 강력한 조달정책의 변화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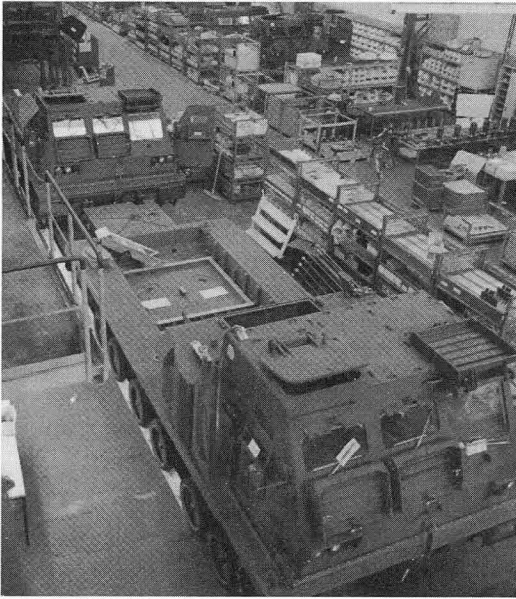
클린턴 대통령이 주의를 기울여 해결해야할 어려움중의 하나는 국방부가 조달정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의 경향입니다.

또한 조달정책관들의 국방예산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강력한 미군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상의 방법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클린턴 행정부는 방산장비 획득절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 지출을 줄이면서 강력한 군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항상 戰時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충분한 방산장비의 연구개발과 생산기반



MLRS 차체 생산 공정

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클린턴 행정부가 간과(看過)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美 방위산업 기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크게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클린턴 美대통령과 레스 아스핀 국방장관이 기존의 방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탈냉전의 시대에 미국의 방위산업은 국방예산의 한계와 가중되는 자유시장 압력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노력은 기업간의 합병이나 매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 활발한 해외시장의 개척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美 방산업체를 불타는 통나무에서 생존을 위해 종종 걸음치는 개미처럼 보이게 합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해서 국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세계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베트남戰 이후의 수준으로 약화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수도 있는 美대통령의 편협된 시각을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美대통령은 기본적인 책임인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개척을 통해 효과적인 방산장비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감축의 혼란속에 있는 美 방산업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지 부시 前대통령은 이를 잘 이해하여 대만과의 F-16판매와, 사우디 아라비아에 F-15의 판매를 승인했는데 이로인해 미국내 방산업체는 얼마간 기반능력을 확장,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런 방식의 지원을 언제라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구조의 기본적인 형태는 주계약업체에 소규모의 하청계약 업체가 부품과 조립품을 납품하는 2차적인 구조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며 만일 소규모 하청계약업체들이 도산해 이러한 기본 구조질서가 무너진다면, 록히드사 같은 비행기 완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더이상 비행기를 생산할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행정부와 미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시장황을 대비해서 하청계약업체를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방위산업 기반」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자급자족」을 의미하며, 전시장황에서도 충분한 장비를 군에 공급할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냉전이후 新세계질서에서 「자급자족」은 과거와는 다른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나라와 협력 필요성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다른나라에 많은 종류의 방산장비 수요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자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라믹코팅 마이크로 칩이라든지, 비행기 날개에 유연성을 주기위한 광물질등 여러가지 외국기업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외국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방산생산을 구입해야 하며, 이러한 무역협력을 외교의 도구로 이용하여 군사동맹국 및 무역대상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에 전략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들을 조만간 美방산장비의 구매자가 되도록 하고, 이것은 다시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외국 방산업체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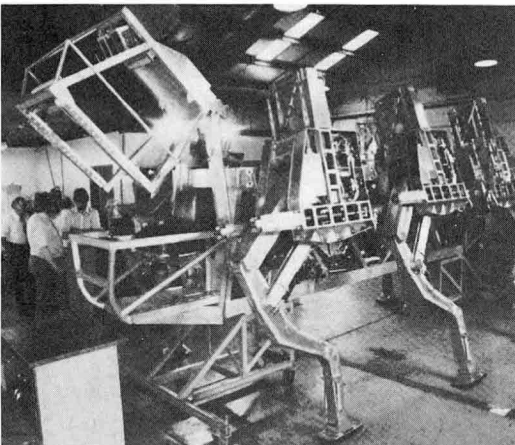
미국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내 산업기반의 순수한 개발외에도, 미국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의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방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얻을수 있는 이득은 상호간 연합작전을 수행할 경우, 장비의 공동 이용과 상호 전쟁 역지력의 강화입니다.

또한 연합국과 합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기술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기술대체효과를 가져오며, 정부관계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장비를 획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우기 모든 관련제품의 수출과 판매를 통해 상호간의 협력을 밀접하게 합니다. 또한 장비의 표준화와 기술개발은 연합국과의 상호협력능

DARPA가 지원하는 ASV 계획



력 강화와 신뢰성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해외시장에서 관련업체간의 시장공유는 제한된 세계 무기 시장의 지역적 협소성을 완화시켜 줍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美 국내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기업간의 협동을 유지하여 평화를 지키고 수행할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기업과 기업간의 협동에 관해 소극적인 경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상호협동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향상을 도모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외국업체로의 기술이전과 공동개발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기업이 좀더 쉽게 미국기업들과 협력할수 있도록 계약과 교섭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미국의 방산업체들을 통하지 않고도, 美 국방부와 직접 계약할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제휴한 업체의 연구개발을 국방부 산하 국방첨단 과학기술연구소(DARPA)의 감독하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미국의 주계약업체들이 공정한 가격과 더 나은 조건을 갖춘 해외의 하청계약업체와도 계약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외국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협동에 참여하여 공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외국 지도자와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 미국의 방위 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변화할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방산업체의 군용기술과 생산시설의 민용기술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 미국의 방산업체가 세계의 군사무기 개발과 시장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통제 할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육성, 개발해야 합니다. *

〈Miltech 93/2〉